

# 「소현성록」의 소설어

## 한글문체의 형성과 해석의 순환 구조

The Language of “Sohyeonseongrok”: The Stylistic Formation and Hermeneutic Circulation of Korean Vernacular Prose

주형예\*

**국문요약** 이 논문은 17세기 한글장편소설 「소현성록」을 통해, ‘소설어(小說語)’라 명명한 언어 형식의 문체적 형성과 해석적 순환 구조를 규명한다. 「소현성록」의 언어는 단순한 서사 전달을 넘어 윤리·정동·사유가 교차하는 한글문체로 작동한다. 폴 리콴르의 ‘미메시스 1-2-3’을 비유적으로 적용해 윤리적 전제-서사 구성-독서와 해석의 순환 속에서 소설어의 형성과 기능을 설명한다. 1장은 유교 윤리와 영웅 서사가 발화와 장면 구성 속에서 가부장적 질서를 재구성하는 ‘전략적 소설어’를 분석한다. 2장은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는 문체의 자율성과 도덕 담론의 모순을 드러내는 ‘잉여 정동’의 작동을 밝힌다. 3장은 이러한 언어적·정동적 역동이 17세기 이후 독서공동체의 해석 속에서 순환하며 후대 한글소설의 지평을 형성한 과정을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소현성록」의 소설어는 도덕적 사유와 정동적 상상력, 사회적 해석 실천을 동시에 매개한 조선 후기 한글 산문의 핵심적 언어 형식임을 보여준다.

**핵심어** 소현성록, 소설어, 한글문장, 정동, 윤리, 독서공동체, 리콴르, 조선 후기 한글장편소설

- 차례**
- 서론
  - 전략적 소설어: 문화적 전제와 서사적 구성
  - 소설어의 현실탐구와 잉여정동
  - 17세기 「소현성록」 소설어의 영향: 독서공동체의 이야기 수용과 변주
  - 결론
- 어휘와 문장, 서술 전략이 산출한 문체적 성취를 살펴보고, 둘째, 그 문체가 독서의 장 속에서 어떻게 순환하는지 고찰한다. 이를 통해 「소현성록」의 언어가 단순한 서사 전달 수단이 아니라, 한글문장이 형성한 사유의 구조이자 사회적 감각의 생산지였음을 밝히려 한다.

조선시대 한글문장은 한문과 달리 제도적·학문적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했다. 언간, 실용문서, 언해서 등에서 한글문장이 사용되었으나, 문장 규범이나 수사 전통이 공식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글장편소설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한글 문장을 발전시키는 실험의 장이었다. 이 글에서 ‘소설어(小說語)’라는 개념을 제안하는 이유는, 소설의 언어가 단지 개별 작가의 문체(style)나 서사 기법에 그치지 않고, 독서공동체의 반복적 해석과 재창작을 통해 한글 산문의 관습과 표현 체계를 형성했다는 역사적 과정을 포착

## 1. 서론

조선 후기 장편소설은 한글문장의 성숙과 함께 독서의 사회적 확장을 이끌어낸 언어적 실험의 장이었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소현성록」이 보여주는 소설어(小說語)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작품의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하기 위함이다.<sup>1</sup> 소설어는 텍스트 내부의 언어 형식인 동시에, 독서공동체 내에서 순환하는 사회적 언어행위이다. 곧 규범을 내면화하는 동시에 균열을 내는 순환적 장(場)을 구성하는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글은 폴 리콤프의 ‘미메시스’ 개념을 비유적으로 활용한다.<sup>2</sup> 서사는 창작자의 전제와 독자의 해석이 상호 순환하는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그의 관점은, 「소현성록」의 소설어가 윤리·서사·해석의 삼중 구조로 전개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전략적 소설어(2장), 자율적 소설어(3장), 순환적 소설어(4장)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2장에서는 「소현성록」의 문화적 기반과 윤리 담론이 소설어의 서사적 구성으로 전환되는 전략적 소설어에 주목하고, 3장에서는 인물과 사건의 서술 속에서 문장과 정동이 만들어내는 자율적 소설어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소설어가 독자와 해석의 장을 매개로 사회문화적 의미로 확장되고 다른 창작의 자원이 되는 순환적 소설어에 대해 논의하여 조선 후기 한글문장이 성취한 소설적 언어의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소현성록」에 대한 연구는 폭넓게 축적되었다. 인물<sup>3</sup>·모티프<sup>4</sup>·서사전략<sup>5</sup>·주제 분석<sup>6</sup>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본<sup>7</sup>·

이후 문학사에 미친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sup>8</sup>도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 혼례와 놀이, 여성의 예술 활동 등 문화적 층위를 조명하는 연구<sup>9</sup>, 감정론<sup>10</sup>과 젠더론<sup>11</sup>, 최근의 디지털인문학<sup>12</sup>까지 다양한 방법론으로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작

속 반란을 소재로 한 군담의 양상과 그 의미, 『어문론총』 99, 한국문학언어학회, 2024, 61~107쪽.

- 5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217~264쪽;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반복서술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73~107쪽;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237~269쪽; 최은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외모 묘사의 양상과 특징」, 『고전과 해석』 21, 고전문학한문학회, 2016, 137~163쪽.
- 6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 12,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02;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 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5~39쪽; 서정민, 「가문 승계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지향」,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203~227쪽.
- 7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서정민, 「소현성록 이본간의 변별적 특징과 그 산출 시기」, 『인문학연구』 10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493~512쪽.
- 8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의 소현성록 연작 수용 양상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319~353쪽; 정대혁, 「자운가 연구-소현성록과의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137~176쪽; 홍정원, 「소현성록과 현몽쌍룡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 형상화의 계승과 변이 양상」, 『문학교육학』 4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283~310쪽; 주형예, 「소대전과 소현성록의 거리」, 『동방학지』 187, 국학연구원, 2019, 155~182쪽.
- 9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5~28쪽; 서정민,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의 시적 양상과 그 소통」, 『여성문학연구』 24, 2010, 121~145쪽; 서정민,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 그림활동의 특징과 문화적 배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2012, 311~334쪽; 허순우,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을 통해 본 17세기 후반 놀이 문화의 일면」, 『한국고전연구』 3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41~83쪽; 탁원정, 「소현성록 혼인담의 또 다른 국면, 분가(分家)」, 『고소설연구』 54, 2022, 151~178쪽.
- 10 정혜경,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12; 최기숙, 「고소설의 감성 문법과 감정 기호: 소현성록의 감정 수사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103~139쪽; 김유미, 「소현성록 본전에 나타난 분노의 표출방식」, 『우리문학연구』 69, 우리문화회, 2021, 79~105쪽.
- 11 정선희,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453~487쪽; 박은미, 「가문소설에 재현된 여성/혐오」, 『여성문학연구』 3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7~61쪽.
- 12 강유규·김바로, 「국문장편소설의 감정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연구 시론: <창선감의록>과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8, 한국고소설학회, 2024, 223~258쪽; 강유규, 「국문장편소설 감정 데이터 모델링의 현실적 방안 고찰: 감정분류체계 정립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84, 2024, 397~432쪽. 이외 강유규의 다수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

1 문체(style)가 주로 개별 작가나 작품의 표현 특성을 지칭한다면, 소설어는 장르 차원에서 형성된 언어 관습과, 그것이 독서공동체 내에서 순환·변주되며 한글 산문 전체의 표현 역량을 확장해간 과정을 포괄한다. 이는 한글이 공식 문어(written standard)로 정립되지 못한 조선시대의 특수한 언어문화적 조건과 밀접히 관련된다. 소설어는 (1) 작가가 선택한 텍스트 내부의 문체적 형식, (2) 작품 간 반복되는 장르적 언어 관습, (3) 독서공동체 내에서 재해석되는 사회적 언어 행위의 세 층위로 작동한다.

2 폴 리콤프, 김한식 이경래 역, 『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지성사, 1999, 128~195쪽.

3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1,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27~155쪽; 장시광,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47~375쪽;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2010, 53~86쪽; 정선희, 「요구되는, 욕망하는 여성상: 소현성록의 석부인」, 『한국고전연구』 4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65~96쪽. 최어진, 「소현성록 석부의 혼종적 자아정체성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4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105~137쪽.

4 강혜진, 「소현성록에 나타난 유불도신 관계 고찰: 퇴치담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8, 한국고소설학회, 2019, 43~77쪽; 서정현, 「장편소설

품의 다면적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대체로 텍스트 내용 분석에 치중하여 한글장편소설이 지닌 한글문장의 성취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소설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소현성록」을 17세기 한글 산문 발전을 수용한 문학언어로 의미화한 연구<sup>13</sup>를 관련 논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미선은 17세기 한글 산문 전반의 발전 맥락에서 「소현성록」을 다루었으나, 실용 산문(인간, 언해서 등)과 문예 산문(소설)의 언어적 기능을 구분하지 않았다. 실용 산문이 정보 전달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했다면, 소설의 언어는 서사적 긴장, 인물의 내면, 정동의 표현 등 문학 적 형상화를 수행하며 한글 산문의 표현 영역을 확장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설이 독서공동체 내에서 반복적으로 읽히고 모방·변주되면서, 한글 산문의 관습적 표현 방식과 수사 전략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학사회 학적 과정을 ‘소설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소현성록」의 소설어가 어휘·문장·술술전략 차원에서 어떤 문체 적 성취를 만들어냈고, 그 문체가 독서공동체<sup>14</sup> 안에서 어떻게 해석·재창작으로 순환했는지를 규명한다. 분석 대 본은 이화여자대학교본 15권 15책의 『소현성록』 본전(本傳)과 별전(別傳) 중 『소현성록』 본전 4권 4책이다.

## 2. 전략적 소설어: 문화적 전제와 서사적 구성

### 2.1. 문화적 자원의 전제: 영웅서사와 유교 규범

소설은 작자<sup>15</sup>의 의식적 설계가 전면에서 드러나는 장르

이다. 작자는 가문 질서의 재현이라는 목적을 위해, 유교 경전의 한문 어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한글 서사 문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추상적 윤리 명제를 구체적 장면과 인물의 발화로 형상화하는 과정이었다. 한글소설은 이처럼 한문 담론을 한글 산문의 표현 체계로 재구성하며, 한글문장의 수사적 역량을 확장했다. 이 작품의 소설어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언어에 머물지 않고, 유교 규범을 시각화하고 내면화하는 전략적 도구의 성격을 견지하였다. 본 장에서는 소경의 인생 단계를 설정하는 소설어의 문화적 전제를 분석하였다.

주인공 소경의 생애는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단계로 배치되어<sup>16</sup>, 영웅의 생애 구조를 전유하면서도 성리학적 규범으로 재맥락화되었다. 영웅서사는 출발-시련-귀환의 보편적 입사식 구조인데<sup>17</sup> 영웅의 구체적 삶은 각 문화권의 상징과 관념들을 반영하며 차별화되었다. 소경의 인생 설계에는 17세기 즈음의 문화 관념이 혼입되어 가부장의 지위와 권위를 공고하게 다지는 결정적 지점들이 선택되었다. 「소현성록」의 작자는 보편적 영웅서사의 자원을 바탕으로 성리학적 성숙 과정에 대한 윤리규범을 접합하여 소설의 시간성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소경의 인생 시간은 성리학의 관념성이 아니라 현실적 가부장제의 질서로 재현되었다.

「소현성록」은 대학에서 제시한 모범적 삶의 여정을 다 음과 같이 전략적 장면으로 구성하였다.

수신: 부모의 훈육, 수련, 과거시험

제가: 세 번의 혼인, 부인과 누이들을 다스리기

설가-독자-텍스트 등 독서공동체를 이루는 한 축이었다.

13 김미선, 「17세기 한글 산문의 발전과 소현성록」,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17.

14 샤프티에는 독자의 세계를 스탠리 피시의 해석 공동체(interpretative communities)를 인용하여 ‘텍스트와의 관계 능력, 용법, 규칙, 관심을 총체적으로 공유한다.’고 하였다. 이 개념을 수용하여 ‘독서공동체’로 논의하고자 한다. 로제 샤프티에 굴리엘모 키발로 역음, 이종삼 역, 『읽는다는 것의 역사』,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14쪽.

15 「소현성록」을 창작한 작자는 ‘소설가’의 성격이 분명하다. 사회적 지위, 보상이나 권리의 문제와 별개로 소설을 창작한다는 의식이 분명했고, 소

16 欲修其身者 先正其心(經一章), 修身而後家齊(經一章), 家齊而後國治(經一章), 國治而後天下平(經一章) 등 『대학(大學)』의 구절은 「소현성록」의 생애담이 보편적 영웅서사와 다르게 역사화되어 제시되는 문화적 전제였다.

17 조셉 캠벨은 신화와 서사의 보편 구조를 ‘출발-입문-귀환’이라는 삼단계 단일신화로 정리하였다. 이 도식은 전 세계 다양한 신화와 설화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서사적 입사식 구조를 보여준다. 조셉 캠벨, 이윤기 역, 『세계의 영웅신화』, 대원사, 1989.

치국: 순무사 부임, 안찰사 부임, 여의개용단 사건 해결  
 평천하: 황제의 인정, 지위 상승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성리학적 삶의 시간에 학습, 과거시험, 혼인, 천하주유 등 당대인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장면들을 배치하였다. 작자는 장면화를 통해 각 단계의 세목들을 선정했는데, 리콤폴르가 ‘마음 씬(Souci)’<sup>18</sup>이라고 명명한 작자의 책임 있는 구성 행위가 드러난다. 예컨대 소경이 과거에 급제하는 장면은 소설 주인공의 입신(立身)이지만, 성리학적 성숙에 대한 당위에 머물지 않는 가문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났다.

- ① 답이 쇼소부 청현호를 공경호야 출세호를 청호디 경위 고 집호니 미양가석호더니 이제 경이 답을 도오라 호니 이는 도령의 큰 경식라 었디 다행티 아니리오
- ② 네 어미 오늘 경스 불 줄은 몽미 밧기라. 노뎨 구친의 가나 호니 업스리로다
- ③ 부인이 설연호야 경연호고 양참정이 손즈와 손셔의 영화를 두곳겨 경년에 청호야 삼일대연호니 일로조차 양부인의 어디르미 밧모의 그족다 일코더라(1권)

급제의 장면에서 개인이 아니라 ‘소광’의 아들로 호명되었고, 황제는 그의 부친과 인연 통해 소경이 급제한 것을 의미화하였다(①). 개인이 아닌 누구의 아들로 호명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소설어의 구체적 전략이었다.<sup>19</sup> 어머니의 영광과 외조부의 기쁨, 주변인들의 찬양으로 서술

되었고, 잔치를 여는 주체도 양참정이었다(②,③). 주변 인물들이 선망하고 칭송하는 서술은 소경의 입신을 가문의 명예로 그려낸 전략적 소설어였다.

소경이 강주안찰사로 도성을 벗어나 돌아다니는 대목은 공자의 주유천하(周遊天下)와 같이 자신의 도를 세상에 향해 퍼는 의미와 평천하(平天下)의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린다는 의미를 결합한 대목으로 보인다. 왕생이 여의개용단 때문에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가씨의 생명을 구하여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는 이야기, 여의개용단을 팔아 질서를 어지럽혔던 도화진인을 깨우치는 이야기가 엮여 있다. 도화진인은 삼천 년을 산 신선인데 요사한 약을 팔아서 소씨 집안의 사건과 왕생의 사건을 일으킨 흑세무민의 발단이었다. 「소현성록」의 사건들이 가문 내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이 대부분이라 이 대목은 전체적 톤에서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평천하의 설계는 작자가 활용한 문화적 자원을 잘 보여주었다. 이미 오랜 독서물이었고 상절(詳節)과 언해(諺解)가 만들어졌던<sup>20</sup> 「태평광기」의 기여를 생각해 볼만하다.<sup>21</sup> 언해본이 만들어지고 낙선재본이 있는 17세기의 상황은 작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방증한다. 「소현성록」의 작자는 기존의 이야기를 주인공 소경이 평천하하는 사례로 활용했으리라<sup>22</sup>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작자가 속한 시대의 상식과 경험할 수 있었던 입을거리는 창작의 자원이 되었고, 이야기 설계의 구조로 재해석·재배치되어 소설 문장으로 실현되었다.

18 리콤폴르의 용어 마음 씬(Souci, Sorge)은 주체가 자기 말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보증하는 행위를 뜻한다. 리콤폴르에게서 서사는 시간의 경험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행위이므로 서술의 단위 설정, 장면화, 인물 설정 등 작자가 행하는 이야기 구성 작업은 마음 씬의 발현이자 소설어 구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폴 리콤폴르, 위의 책, 141쪽.

19 물론 현실의 문과방목에도 합격자의 이름, 생년, 본관, 거주지 그리고 부(父),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 외조부(外祖父)의 이름과 관직을 함께 기록한다. 소설어는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호명되는 장면을 서술하였고 황제 또한 소경을 부친과 인연을 통해 언급하는 장면을 선택하는 전략적 서술을 하였다.

20 『태평광기상절』은 1462년 세조의 명으로 성임이 간행했고 『태평광기언해』는 17세기 정도로 추정된다.

21 유요문은 『태평광기』 보음-원보 편인 『태평광기상절』, 『태평광기언해』로 수록되면서 신이성이 공적 정치와 사적 복수가 강조되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소현성록」에서 신이성이 공적 정치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대부 문화의 경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요문, 「〈태평광기〉에 나타난 악인의 양상과 그 수용의 의미」, 『우리어문연구』 71, 우리어문학회, 2021, 501~533쪽.

22 이혜조 소설을 비롯한 근대의 소설에서도 아담을 차용하고 재해석해서 서사를 구성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구운몽」이나 「소현성록」 등 거의 모든 소설에서 발견되는 이런 현상은 소설의 생선이 많아지면서 보편적 방법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

## 2.2. 소설어로의 전환: 장면화와 서술 전략

「소현성록」이 주제화했던 윤리규범은 윤리서와 달리 소설어로 쓰임새를 시험하며 다른 문장 영역으로 나아갔다. 윤리규범의 간명한 지시 언어에서 벗어나, 인물과 사건 등이 구체화되면서 현실 의미 맥락들을 재현하는 화용론적 해석 언어로 개발되었다.

교영의 사건에서 윤리적 명령이 장면으로 구성되는 것과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적 서술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겠다. 양부인이 교영에게 죽음을 명하는 장면은 윤리규범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흐름을 갖추었다. 교영의 실절에 대한 문제 해결과 처벌에 이르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 구조로 구성되었다.

가부장의 권위를 가진 자들은 교영의 자질에 대해 우려하였다.

→ 시집 가문이 역적으로 몰려 몰살되고 교영은 유배를 갔다.

→ 예상하던 대로 교영은 실절했다.

→ 양부인은 교영의 실절을 알고 사약을 먹였다.(1권)

자질에 대해 우려했다더라도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은 간단하게 교영의 실절(失節)과 그에 대응되는 처벌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술자의 목소리는 미리 전제되어 있는 편견들을 드러냈다. 교영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영이 여러 가지 좋은 자질이 있음에도, 기질이 약하여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는 부분을 반복 거론하며 예언하였다.

① 교영은 밧그로 닝담호고 뜻이 된 듯으나 그 모습은 붓치논 거피줄 긋트니 내 근심호는 배 소양이 문의 청덕을 아히 썬리버릴가 두려호노라

② 엇디 홀노 내 쳐지 썬디뇨? 그 얼골을 나모라미 아니라 인물이 단정티 아니를 탄호노라

③ 공직 쏘흔 그누의 를 아논디라(1권)

①은 양부인이 교영에 대해 미리 내려두었던 평가였으며, ②는 교영의 남편 이생이 부인에 대해 내린 평가였다. ③은 소경 역시 누이 교영에 대해 평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양부인의 목소리는 ‘이런 더러운 거슬 가뉘의 두리오?’하고 ‘약을 직촉호야 교영을 먹이니’라고 해서 처벌을 명하는 권위를 드러냈다. 처벌을 명하는 목소리는 가부장의 역할을 하거나 가부장의 권위를 인정 받은 양부인이었고 소경은 순종했다. 장편소설에서는 규범을 지키고 강직하고 매몰차게 실행하는 열(烈)의 여성 인물들을 긍정적으로 그려냈고 때로는 ‘성욕은 물론 애욕마저도 결여’되어 있다고<sup>23</sup> 논한 바 있는데, 교영은 그 반대에 놓이는 인물이었다. 가부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예상대로 교영은 실절했고, 그래서 그들은 처벌을 명하였다.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연극처럼 가부장들은 예언했고, 예언대로 사건이 발생했고, 마땅한 처벌을 한 셈이었다.

윤리규범을 주제화하면서 설계한 대로 이루어졌던 장면이었지만, 가부장의 예언, 교영에 대한 인물평, 실행, 처벌이 논리적 단계로 제시되면서 연민이 없는 경직된 규범을 보여주었다. 당대 독자들에게는 규범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효과가 될 수 있었지만 서사 내적으로 시차를 두고 반추된 사건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sup>24</sup> 소설어는 독자에게 윤리적 고양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의문과 모순이 시작되는 해석의 근거였다.

「소현성록」에서 주인공들은 우월한 자질을 가진 것으로 전제되지만 이는 소설 전략으로 달성된 효과였다. 서술

<sup>23</sup> 이경하, 「하옥주론: 하진양문록 남녀주인공의 기질연구(1)」,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27~251쪽.

<sup>24</sup> 김성이 전일 승상의 누이 니한님 체 실절호야 양부인이 스약호를 아랐는 디라 이에 운성의 제 운성이 썬지물 듯고 문득 미소 올 명가고문의 봉관하 리 혼 명부도 실행호니 혹 남지 실행호미 있다 그대도록 호리오(13권) 소 씨 집안의 사위 김현은 집안 내에서 발설이 금기시되었던 교영의 사건을 끌어다가 정당화와 변명의 근거로 삼았다.

자가 의식적으로 특정 인물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차용한 전략 언어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① 소경의 임의 두 설이 못하야서 글즈를 히득하고 삼세에 성경을 낭낭이 외오느니라/공직 혼갖 총명이 괴이홀 분 아니라 인식 숙성하고 성회 출턴하야(1권)
- ② 내 아히는 인둥 성인이오 오작둥 봉황 갖타야속인의 브랄배 아니라. 제 부친이 비록 희롱된 일이 업고 지극 엄준하니 이러튼 아니하야 일즉 외당의 머물물 보디 아녓느니 이진짓 제 부친과 다난디라(1권)
- ③ 소윤석 삼인이 옥슈의 잡은 바 칠보선을 기우리고 둥인 총둥을 향하야 흥순옥치를 움죽여 말슴을 일우매 향기로운 바람이 니러나고 빅티만광이 뉴출하니 분디의 상품과 지분을 염히 너기는 절식이 이에 들매 탈기하야 비컨대 금분의 흥빅 부용이 성히 띄여 이슬을 머금어 모양의 썰턴 듯흔 건티디는 두견화로 글와 이십 갖트니(4권)

①과 같이 서술자의 직접적 평가를 통해 인물의 자질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②와 같이 주변 인물의 발화를 통해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주요 인물의 권위를 구축하였다. 또 ③과 같이 주변 인물의 시선을 통해 소씨 집안 인물들의 우월함을 시각적으로 전환한 장면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그들을 향한 찬양과 미화의 수사로 구성된 소설어는 독자에게 작자가 구축한 위계와 질서를 의심 없이 수용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 서술자는 특정 인물들에게 우월함을 부여하기 위해 직접 수사들을 써서 서술했고, 주변 인물들의 목소리를 이용했고, 다른 인물들과 비교하여 우월함을 보여주는 장면을 넣었다. 인물과 장면을 설계하고 서술자의 수사로서 권위를 부여하는 소설어를 선택하여 권위있는 인물 형상을 완성하였다. ‘타고난 권위’로 서술된 전략적 언어는 역설적으로 현실의 권위 역시 언어를 통해 구성됨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서술자의 평가와 인물 간 발화, 타인과의 비

교 같은 서술기법은 소설어가 윤리적 질서를 언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 3. 소설어의 현실탐구와 잉여정동

#### 3.1. 소설어의 현실탐구

2장에서 살펴본 전략적 소설어는 작자의 설계대로 윤리 규범을 형상화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소설어는 형상 언어의 자율성으로 인해 작자의 의도를 초과하거나 그에 균열을 만든다. 윤리적 현실은 단지 서사 속 도덕 질서로 완결되지 않는다. 독자는 인물의 선택과 감정의 균열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자신의 윤리 감각을 재구성한다. 이때 「소현성록」의 소설어는 독서의 행위를 매개로 윤리적 사유의 형식을 실험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예컨대 양부인이 소경을 훈육하는 장면은 일방적인 규범의 전달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완성되는 소통 장면으로 나타났다.

- ① 양부인이 크게 근심하고 두려 히혀 당원티 못홀가 하야유 모로 하야곰 서당 갖가이 가셔칙을 보디 못하게 하라 하니(1권)  
내 일즉 선군을 여회고 너를 의디하야 아름다이 성인홀물 브라거늘 네 엇디 감히 요괴로운 거슬 외당의 모도와 방즈 하기를 전쥬하느뇨(1권)
- ② 공직 비록 삼스 세 유이나 이 뜬득 범골이 아니라. 태태의 녀너하시를 알고 쏘흔 칭각하디 내 나히 어리니 공부의 진취하미 밋브디 아니타(1권)  
히이 여러 봉우를 모도와 어즈러이 드레고 풍뉴를 들미 태태 티가하시는 위풍을 썬러브리니 죄 죽어도 족하도소이다(1권)

①에서 양부인의 훈육이 ②에서 공자의 헤아림과 순중

이 대응되어 나타난다. 양부인이 소경을 훈육하는 장면은 유교적 모자 관계의 이상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설어는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구조를 드러낸다. 소경은 이미 ‘범골’이 아니어서 훈육이 필요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아이’라는 역할 때문에 훈육을 받아야 하고, 그는 어머니를 ‘헤아려’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장면이 드러내는 것은 윤리적 이상이 아니라, 역할 수행 자체가 질서의 조건이라는 가부장제의 작동 원리다. 개인의 실제 능력이나 내면은 부차적이며, 주어진 위계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가가 핵심이다. 작자는 모범적 훈육을 보여주려 했지만, 소설어는 그 이면의 강제적 구조를 노출시킨다. 앞서 분석한 교양의 처벌에서 양부인은 ‘어머니’로서, 소경은 ‘장남’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뒤에서 분석할 화씨와 석씨의 갈등에서도, 문제는 개인의 자질이나 감정이 아니라 역할 위계의 충돌로 제시된다. 「소현성록」의 소설어는 이처럼 인물의 내면이나 개성보다 역할의 적절한 수행에 초점을 맞추어, 가부장제적 질서가 개인의 자율성이 아닌 역할의 분담과 위계적 수행으로 작동함을 형상화한다.

소경이 과거시험장에서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을 대신 작성해준 사건은 현실을 지탱하는 또 다른 상식을 모방하였다. 표면적으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효성스러운 마음에 대해 감복하여 소경이 은혜를 베푼 것으로 서술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은 정치적 우군(友軍)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동했다.<sup>25</sup> 명분은 효이지만, 실질은 정치적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현실 삶의 국면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스칭’·‘친우’로 호명하며 소경을 우월한 자리에 둔 상하 질서를 인정했다.

윤소저를 구제하여 양녀로 삼는 대목과 가씨를 구제하

여 왕생과 맺어주는 대목 역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였다.

- ① 쇼첩이 외로운 자취로 험험이 의디 업슨디라. 결단코 이에 잇디 못홀 거시니 상공이 만일 어엿비 너기실딘대 경스의 두어 친족이 이시니 드러다가 뒤물 브라느이다.(1권)
- ② 첩이 상공의 은덕을 넘어 사라나고 상공이 히둥의셔 첩을 구하시니 우연혼 인연이 아니오 상공과 첩이 다 각니의 외로운 쇼년이니 하늘이 주시미라. 고어의 날오디, 턴여를 블취흐면 반슈기히라호니 우리 낭인이 부뷔되미 가티 아니 업슬디라. 이러므로 첩이 붓쓰러오를 닛고 이에 니르르느이다.(3권)

①윤씨와 ②가씨를 구조하자 두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경과 인연을 맺고자 의사를 드러냈다. 야담에서 같은 모티프는 남성의 절제(節制)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지만,<sup>26</sup> 「소현성록」은 여성을 가문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교화의 서사로 재해석했다. 교화를 통해 가문의 외연을 넓히는 과정으로 전유하여 서사적 전환을 이루었다. 야담의 이야기가 남성의 윤리성을 논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소설에서는 여러 인물의 삶을 개연성있게 그려 내면서 초점이 다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 복합적 현실을 다른 의견으로 풀어냈다.

여씨가 여의개용단을 먹고 석씨로 모습을 바뀌서 악행과 모함을 행하자 소경이 석씨를 오택하고 내쫓았던 대목 역시 선악의 문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제가(齊家)에 실패한 사건이지만, 소경은 이후 안찰사로 나아가 여의개용단을 제작하여 판매한 도화진인을 훈계하여 사회악을 해결했고 문제의

25 과거시험 장면에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 그들이 만나는 장면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상시 소침 섬기물 놓흔 스침으로 호고 소침도 더오 인으로 더 브러 지극헌 친우되어 서르 공경호고 사랑하나 사름이 차작헌 줄을 알니 업스며 모춤 소침이 구외에 내어 일가지친의도 아니니 그 틈동헌 우인이 이 곳트 더오 인이 불승감격하야 하더니’(3권) 여기서 보면 대리담안은 서사 내적으로도 그다지 명예로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26 『삼교별집(三橋別集)』 권1 만록(漫錄) 1의 문문산, 조정암, 김하서, 권석주, 민노봉, 김문곡, 이자의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선비들은 금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작자는 인간적 의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비교해 볼 때, 「소현성록」은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 해법으로 볼 수 있다. 이우성·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 일조각, 1973, 212~225쪽.

근원을 제거했다. 여의개용단은 가문 내 부부의 관계 문제, 왕씨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구제의 문제, 도화진인의 악행을 평정하는 가부장의 초월적 능력의 문제에도 결부되며 여러 이야기를 엮는 서사적 매개로 기능하였다. 여의개용단은 가정 내 악행의 도구였고, 남녀가 인연을 맺는 소재가 되었다가 초자연적 영역에서 최종적 승자를 가리는 매개가 되었다. 서사 내에서 의미를 바꾸며 기능하는 여의개용단처럼, 소경은 기만당하고 제가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최초의 원인이었던 도화진인을 제압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교영 이야기에서 하나의 윤리적 주제에 대해 하나의 처벌로 완결되었던 단순성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다른 현실적 시각과 해법을 보여준 소설어 사례였다.

몇 가지 경우에서 보듯, 「소현성록」의 소설어는 작자의 전략적 언어로만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의 복잡성을 드러냈고, 시간적 지속과 장면화의 기법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였다.

### 3.2. 잉여정동의 소설어

현실에 대한 소설어의 탐색은 의식화된 상식과 관념 체계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대 상식과 관념으로서 술할 수 없는 인물의 정동도 소설의 형상 언어로는 표현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잉여정동'이라 명명하고, 브라이언 마수미의 '정동의 잠재성' 개념을 참조하지만, 구조의 운동성보다 그 경직성과 균열을 드러내며 구조 내에 자리잡지 못한 정동에 주목한다.<sup>27</sup> 발화의 양이나 서술의 제약 등 표현의 제약이 언어적으로 드러났고, 타인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정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사 전개 과정에서

인물에 대해 기대되는 행동과는 다른 정동이 불쑥 튀어나오는 대목도 있었다.<sup>28</sup>

정동을 드러내는 서술은 권위있는 목소리가 서사를 주도하는 맥락에서 부차적 지위에 놓였다.

규범을 위반하는 여성 인물들의 발화는 서사적 주도권을 갖지는 못하지만 미약하게나마 항변하고 있었다.

- ① 교영은 일변 슬프고 일변 붓그리니 슬프든 모친과 친족을 만나미오, 붓그리든 제 횡실을 천히 흐미라
- ② 쇼네 엷디 실절흐미 이시리잇고
- ③ 쇼네 비록 그릇 흐여시나 모친은 잔명을 용샤흐쇼셔(1권)

교영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항변할 논리와 기회가 없었다. 실절 유무만을 따지는 대화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 밖에 발언할 수 없었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았다(①~③). 교영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다음 주변 인물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대목이 길게 서술되는데 교영을 처벌한 것에 대한 다른 의견을 봉합하거나 무자비하다는 평가를 피해 정당화하는 효과를 노리는 서술 전략으로 보인다. 전략적 서술에도 불구하고 슬픔의 장면이 서술되면서 교영의 처벌이 주변 인물들의 마음에 슬픔과 의문을 남겼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석패 쫓아와 싱의 스매를 잡고 울며 왈, 쇼낭직 비록 그릇 흐여시나 부인이 엷디 츠마 죽이시며 낭군이 흐 말도 구티아 니시고, 이제 장스를 일우매 니시 문하는 비록 불가흐나 소시 선산의 장흐야 디하의나 낭직 외로운 녕흔이 되디 아니케 흐미 울커늘 엷디 낭군이 흐갓 부인 말씀만 슌슈흐고 동긱지정이 박흐시뇨?(1권)

27 브라이언 마수미는 정동을 '의식되지 않은 강도의 경험'이자 '구조를 변화시키는 잠재적 능력'으로 보았다(조성훈 역, 『정동정치』, 갈무리, 2018). 그러나 본고의 '잉여정동'은 이와 달리, 「소현성록」의 가부장제 서사 내에서 윤리적 질서로 통합되지 못하고 억압되거나 봉합되어야 했던 정동의 잔여를 가리킨다. 교영의 발화 불가능성, 화씨의 반복적 분노, 석씨의 순간적 반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구조의 운동성이 아니라 구조의 경직성과 그 균열을 드러내는 징후로 작동한다.

28 잉여정동 분석은 서사화된 텍스트를 독자가 해석할 때 발견되는 균열에 해당된다.

‘우는’ 말 속에 묻혔지만 죽이는 처벌을 한 양부인의 잔혹함, 사태를 막지 못한 소경의 책임, 집안에 못자리를 두지 않는 박절함에 대한 반론이 담겼다. 물론 소경과의 의론 끝에 ‘낭군의 금옥궂튼 말씀을 드르니 춘몽이 썩 듯 하이다’라고 하여 설득되었지만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슬픔에 대한 표현에서 명령 당사자였던 양부인의 정동 서술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인이 북아흐로 상의 늑려 심을 붓들고 기리 통곡하니 심이 더욱 슬허 겨유 모친을 위로하고 물러나 월영으로 더부러 테읍흐를 마디아니하고 그 제와복을 극진히 하니라(1권)

양부인이 교영에게 죽음을 명령했지만 그의 명령은 당위적 윤리에서 나왔고, 윤리적 명령은 인물의 정동과 철저히 분리되었다. 윤리적 명령을 내리는 ‘나’와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나’는 분열되어 통합되지 못했고, 내 안에서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두 개의 자아를 드러내고 있어 도덕적 자아를 명시하는 듯하지만, 내면적 자율성 없이 전제된 윤리규범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양부인의 경우 도덕적 자아로 보기는 어렵다. 「맹자」에서 수오지심(羞惡之心),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대표되는 개인 윤리의 발아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이들은 성(性)과 정(情)의 조화를 전제로 한 전통적 유교의 인간형과 달리, 윤리적 명령이 정동의 충동과 분리된 상태에서 작동하는 존재들이었다. 여기에서 정동은 윤리적 실천과 공존하거나 추동하는 조건이라기보다 윤리규범을 수행하는 자아와 분리되어 출구를 잃은 정동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잉여 정동은 가부장제 질서에 온전하게 통합되지 않은 서술이었다. 정동은 서사적 주도권을 갖지 못했지만 앞선 문제해결에 온전히 수궁할 수 없는 요소가 있음을 드러낸 표지였다.

화씨의 정동은 좀 더 선명했다. 석파가 친정 집안의 석

씨를 소경의 둘째 부인으로 중매하자 화씨는 석파와 대립했다.

내 일즉 서모로 원슈 업거늘 모습 연고로 날을 미워 덕국을 천거하뇨? 서피 만일 곳치면 말녀니와 나중 내 원슈를 디올딘대 전제의 어당검으로 혼 번 덜너 설흔하고 내 쏘흔 죽으리라(2권)

소경은 화씨에게 어머니 반열에 있는 석파와 대립하는 것이 그릇됨을 훈계하였다. 하지만 화씨가 정동을 표출한 것은 근본적으로 둘째 부인을 들인다는 가부장의 결정에 대한 것이었다. 정동이 덧씌워진 발화는 현실에 대한 지시적 의미보다 분노의 크기를 드러내는 기능으로 나타났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소경이 화씨를 가르치는 말은 위계적이며 많은 양의 발화 서술로 나타나지만 화씨는 그에 대해 맞대응을 하지 못했다. 화씨의 반응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화씨 질병이 일향 탐면하여 장춧 스텐의 갖가오되
- ② 자연 테읍흐므로 그 부친과 오라비를 보면 눈물이 비 굶타니
- ③ 화씨 설음과 분흐를 이기디 못하야 죽리틀 즈분하야 사랑의 무르미 엇슨 지 팔 삭의 니르러는 아조 곡기를 굶친 디이십 일 맞기라
- ④ 놀납고 역시 노호와 금금을 드러 머리틀 빗고 보디 아니하더니
- ⑤ 화씨 춤디 못하야 소리 질너 왈
- ⑥ 화씨 노기를 이기디 못하야 능히 덩하야 누엇디 못하거늘(2권)

화씨는 소리를 지르지만 소경은 ‘소리를 느즈기’ 하여 ‘경계절칙’한다. ‘물윗 녀지란 거시’로 시작하는 말은 당위에 대한 것이지만 상대의 정동을 헤아리거나 공감하는 바가

없었다. 인간과 인간의 공감과 연민은 없고 각자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이야기였다. 소경이 가르쳤으나 화씨는 ‘혼절’했고, 서술자는 원래 성격이 조급하고 심한 약질이라 병이 들었다고 서술했다. 화씨가 감정을 가라앉힌 뒤에도 혼인은 예정된 대로 치러졌고 결과적으로 화씨의 정동은 해소되지 않았다.

석씨는 서술에서 고평가되는 인물이었지만 자질에 맞지 않는 순종해야 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고, 요구되는 대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으로 보기에 석연찮은 대목이 발견된다.

원닌 쇼제 상문의 녀즈로 사름 아래 되디 아낫더니 일도의 소부의 드러와 화시의 능만천디흐를 바드디 일양 화평흔 드시 디내고 공손히기를 힘쁘더니 석상의 불안흔 말을 듯고 이렁이 피로오를 슬허 춤디 못흐는 등 석과의 화시를 알면서 즈기로 인연흐를 더욱 고이히 너겨 종야토록 울억흐야 자디 못흐고(2권)

석씨는 자신이 놓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 소부는 석씨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지만 석씨의 내면에는 분열된 잉여 정동이 발생했다.

쇼첩이 었디 상공의 청명지치를 농히며 녀시씨 소그미 그르다 흐리오? ①이 일이 전후의 나의 불민흐므로 명털보신 지척을 아디 못흐므로 이런 일이 잇는디라. 즈당감쉬라. 다만 ②군직 으녀 삼 인을 거느리시매 가뉘이 슬난히시니 그 직죄 높고 위엄이 둥흐를 죽히 알디라. 즈고 만승지췌 스희를 드스리매 곁을 업슨 둥 궁첩의 춤언으로 황후를 폐출흐미 구트여 그르디 아니흐를 이에 췌듯고 마춤 상공이 으즈의 숙녀를 니르실시 슴지 현티 못흐니(후략)(4권)

먼저 소경이 자기 정당화의 발언을 하므로 소경의 잘못을 공격하지 않고 ①과 같이 고난은 자기 탓이었다고 순

종의 말로 시작한다. 다만 부인 셋을 두어 집안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어려움을 말하여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인을 셋을 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②). 소경은 잘 다스린다고 해도 자식도 그럴 수 있을까 묻고 있다. 혼인 관계를 경험하는 당사자들의 자질이 높고 낮음으로 갈등의 원인을 돌리는 세계의 상식에 대해 석씨는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석씨가 마침내 택한 결론적 태도는 ‘그림자 얼굴 좇듯’하며 양부인을 봉양하는 것이었다. 그의 표면화된 일관성있는 태도는 그림자같이 양부인을 좇는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튀어나온 반론은 그의 정동이 해소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교영·화씨·석씨 사례에서 드러난 잉여정동은 서사의 권위적 목소리와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교영의 경우 잉여정동은 발화되지 못한 채 주변 인물들의 슬픔으로만 전가(轉嫁)되었고, 화씨의 경우 반복적 분노와 억압의 과정을 거치며 교정의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석씨는 순종적 태도를 유지하지만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반론과 억울함을 통해 분열된 자아의 흔적을 남겼다. 따라서 잉여정동은 윤리규범의 완전한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정되며 사건은 봉합되었지만 동시에 질서로 온전히 통합되지 못하는 균열을 드러내는 표지로 모습을 드러냈다. 「소현성록」이 그리는 가부장제적 윤리의 질서가 완결된 체계라기보다, 끊임없이 억압하고 봉합해야만 유지되는 불안정한 구조였다는 역설이었다. 소설어는 윤리의 시뮬레이션을 시도했지만 형상 언어의 자율성 속에서 질서의 경계를 넘는 정동을 노출했다. 이는 작자의 창작 행위와 소설 언어의 자율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결과이다. 작자는 소설어로 포착한 이 형상에 질서 내의 명확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잉여정동은 작자의 작업이면서 동시에 독서의 장에서 다시 활성화되는 감정적 동력이었다.

## 4. 17세기 「소현성록」 소설어의 영향

: 독서공동체의 이야기 수용과 변주

### 4.1. 독서공동체의 해석: 작품 내 정동의 전유

3장에서 분석한 화씨의 잉여정동은 독서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해석적 동력으로 작용했다. 텍스트가 봉합하려고 했던 윤리적 틈새를 독자들이 파고들어, 억압된 정동을 자신의 목소리로 재전유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소설어의 독서와 창작으로 이어지는 해석 행위에 주목하여 사회문화적 순환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소설어의 영향은 개별 독자에게서도 나타나지만 독서의 장이 형성되면서 다른 작품의 창작에 문화적 전제로 기능한다. 여타 작품에 반영될 때 외부의 물질적 조건과 독자 범위의 변화를 수용하며 소설어는 복합적 변모 양상을 보이게 된다.

「소현성록」 소설어는 가문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중심으로 관계 윤리를 언어화했고, 집 밖을 벗어나면 간단하게 서술되거나 초월 세계로 처리했다. 집 밖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독서공동체가 전제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들 독서공동체에서 집 밖의 세계는 도화진인같은 도사가 악행을 저지르거나 가부장이나가 세상을 구제하는 곳 정도의 인식으로 그려졌다. 독서공동체의 경험 토대와 관심사가 소설어의 형성과 세계 인식의 한계를 설정했고, 독자들은 작자의 의도를 꽤나 정확하게 판단했다.

‘규문이 가즉하니 수신제가 잘도 한다’<sup>29</sup>

「소현성록」에서 소경이 부인들을 잘 다스리는 것을 ‘수신제가’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였다. 독자들은 작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하여 독서의 증거를 남기고 창작으로 연

결했다.

「소현성록」에서 서술자는 두 부인 화씨와 석씨 중 석씨에게 후한 평가를 했지만 독자들은 조강지처인 화씨에게 더 마음을 쓰고 있었다. 위에서 거론했던 「자운가」에서는 ‘화석은 현불초가 바이 업다’고 하여 둘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과부가」에서도 화씨와 석씨를 동등하게 평가했다.<sup>30</sup> 물론 조강지처의 기득권이 명분으로 등장하지만 작품 내의 화씨의 억압된 분노와 슬픔이 독자들의 해석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석숙난은 유순흔 부덕이 닳다 하나 감지를 지임하여 당당한 원비 소임을 즈당하여 성되 어지지 못하고 가부의 출정시의 아들을 덕하여 은은이 원비 화시의 덕악을 비취여 스스로 덕을 자랑하고<sup>31</sup>

위 대목은 후처가 전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을 꺼리는 서열적 사고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소현성록」 해당 부분에는 참람함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과잉 비난 독후감이 나온 것은 화씨의 억울한 감정에 동일시한 독자들이 할 수 있는 의식적 표현이었다. 이는 3장에서 분석했듯이, 서사 내에서 온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분노와 눈물, 질병으로 표출되었던 화씨의 ‘잉여정동’에 독자들이 감정적으로 동화(同化)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결과이자 소설어가 내장하고 있던 체제 내의 모순을 독자가 읽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2. 소설사적 확장: 장르적 변주와 순환

한글장편소설이 상층 사대부 집안 여성들의 독서물이었고, 독자층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이후 소설사의 진행

29 정대혁, 「「자운가」 연구: 「소현성록」과의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7, 143~144쪽에 정리되어 있는 편자 미상, 皇陵廟妖孽蕩平傳(單), 성균관대학교 소장본, 순종신위봉안일(1928.4.28)본 「자운가」를 참조하였다. 이 논문에서 자운가의 형성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보았다.

30 영등을 노피달고 언문고담 빗기들고 소현성록 보노라니 화씨석씨 절행이라. 「청춘과부가, 우현기, 『가사집』, 1936, 56(한국가사문학DB <https://www.gasa.go.kr/?gasa=18&mode=view&uid=3625>)

31 『여와전(女媧傳)』 디지털장서각, PB7B-112([https://jsg.aks.ac.kr/dir/view?datald=LIB\\_177638](https://jsg.aks.ac.kr/dir/view?datald=LIB_177638))

으로 볼 때, 소설어 승계는 외적 조건들과 조응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sup>32</sup> 실제로 가문을 소재로 한 장편 소설에서 중단편의 영웅소설로 장르의 주종이 바뀌면서 독자들의 범주도 변화 확대되었다. 독서는 또 다른 작품의 문화적 전제로 기능하며 이후 한글장편소설에서도 작품 간 편차를 드러냈다. 「소씨삼대록」의 소운성, 「유씨삼대록」의 유세형, 「하진양문록」의 진세백, 「하진양문록」의 하옥주 등 주인공들은 「소현성록」의 소경이나 화씨·석씨 등과 매우 다른 내면을 가진 생동감있는 주인공으로 형상화되었다. 소경이 가문 내의 모범적 인물로서 규범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반면, 「소현성록」 연작으로 이어진 「소씨삼대록」의 소운성은 영웅소설의 무장(武將) 주인공이 이미 장편소설에서 탄생했음을 알렸다. 유세형은 핵심 주인공임에도 감정과 욕망을 따라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젊은 시절을 보여주었고 진세백은 방탕한 한때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냈다. 하옥주는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의 전조(前兆) 같았다. 윤리규범의 전형 같았던 주인공에 대한 독서공동체의 해석·변주 결과였다. 「소현성록」의 여성인물들이 보여주었던 해소되지 못한 정동도 서사적 맥락을 얻는 소설어의 진행이 감지되었다. 작위를 받고 독립된 가문을 형성하여 몰락한 친정 가문의 제사를 지내는 ‘설초벽’과 같은 여성 가장까지도 나타나 한글장편소설 내에서 매우 큰 편차들이 만들어졌다.<sup>33</sup> 널리 알려진 ‘홍계월’이 남장을 하고 공을 세워 작위를 받았지만 결국 남편의 집안에 속했던 것에 비하면 그의 독립성은 더 과격

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여러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현실적 개연성까지 확보하였다.

방각본 소설시장이 형성되면서 좀 더 단순한 서사가 주류를 이루었고 형상이나 관계, 인과성 등에서도 단조로운 편집 성향을 보여주었다. 소설어가 독서공동체의 관심사나 윤리담론 뿐만 아니라 물적 토대에도 연루되었다는 뜻이다. 윤리규범을 수행하는 윤리적 삶이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졌고, 부귀영화에 이르는 서사에 집중하면서 소설어는 감정이나 개별 인물들에 시선을 돌리는 대신 주인공이 예비된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을 마련하였다.<sup>34</sup>

후대 소설사에서 「소현성록」의 소설어는 작자와 독자층의 변화나 출판유통 양상의 변화, 선호하는 이야기의 차이 등 소설의 장에 나타난 변화들을 따라 다양한 계승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소현성록」의 ‘소설어’는 개인과 공동체, 규범과 정동,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역동적인 언어였으며, 이는 후대 소설사 전반의 풍부한 이야기거리와 사유의 씨앗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35</sup> 이와 같이 소설어의 순환 구조는 독자의 해석과 재창작을 통해 현실을 다시 구성하는 행위였다. 그것은 윤리적 의미화를 넘어, 정동과 욕망의 해방이 서사적 쾌락으로 재조직되는 탈구조적 동력이었다.

32 최근 이민주는 당대 여성 독자들의 독서와 창작 활동에 대해 주목하여 인물 비평형 파생작과 주제 비평형 파생작으로 구분하였다. 상호텍스트성 연구, 파생작 연구, 독자 연구, 장르 연구 등이 차후 소설어 연구로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주, 「한글장편소설의 파생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4.

33 「유씨삼대록」의 설초벽이 그에 해당된다. 모티프 전유에 대해서 주형예, 「조선 후기 소설 장(場)에서 구성된 지식: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담론의 실천 전유, 분산의 한 사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학회, 2013, 5~37쪽에서 다뤘다. 물론 직접적 기원은 「태평광기」 193권 「규염객전(蚩髯客傳)」 홍불기(紅拂妓) 이야기이고 「구운몽」의 심요연에서 활용된 모티프이지만 여성 가부장으로 전유했던 것은 주목할 만한 경우였다.

34 소설어의 형성과 전유는 시대가 제공하는 물질적·젠더적·문자적·신본적·제도적 조건에 따라 장르를 달리하면서도 면면히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변화는 반드시 바로 이어져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편소설에서 내면적 질투를 서열화된 질서 내에 해소하고자 했던 모티프들이 전면적으로 다뤄진 것은 개인의 내면 욕망이 문자적으로 표현되었던 까닭이지만 방각본에서 편집된 단편 위주의 소설에서는 분량상으로도 서사의 장르적 구성에서도 욕망에 대한 서술은 배제되었던 탓이다.

35 이 지점은 단순히 장르적 특성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문자 기술, 독서 공동체의 변화, 출판 제도의 발전 같은 사회·문화·기술적 요인과 긴밀히 맞물린다. 따라서 소설은 근대 이전 시간성 안에 위치하면서도, 근대적 제도 변화를 촉발하는 장치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이 글은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한글소설이 형성한 소설어의 구조와 문체적·해석적 성격을 고찰했다. 이때 소설어는 단순한 서사 언어가 아니라, 사회적 상상력의 형식으로 작동한 언어적 실천이었다. 이 글의 논의는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17세기 한글장편소설의 언어 실험을 추적한 예비적 분석으로, 동시대 작품군의 문체 구조를 설명하는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다.

공식 문어 체계를 갖지 못했던 조선시대 한글은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산문 문장의 표현 체계를 자생적으로 발전시켰다. 한문이 경전과 제도를 통해 문장 규범을 확립했다면, 한글은 소설의 창작과 독서라는 비공식적 문화 실천을 통해 서사적 문장, 정동의 언어, 윤리적 사유의 형식을 개척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소현성록」의 소설어는 다음 세 측면에서 조선 후기 한글문장의 사유 구조를 드러낸다는 점을 확인했다.

첫째, 소설어는 당대의 윤리·문화적 담론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장과 서술의 층위에서 재배열하고 변형함으로써 새로운 의미 질서를 창출했다. 즉 한글문장은 관념적 윤리의 언어를 일상적 서술로 변환함으로써, 유교적 규범의 언어를 감정과 정동의 언어로 재구성했다.

둘째, 그 문체적 성취는 독서의 장에서 해석 행위로 다시 순환하였다. 독자는 소설어를 통해 윤리적 갈등과 감정의 긴장을 해석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경험 세계를 재구성했다. 이때 정동은 감정과 욕망의 에너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윤리적 의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서사적 동력으로 작동했다. 나아가 이러한 정동의 운동 속에서 소설어는 개인의 윤리 감각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매개하는 언어적 실천이 되었다.

셋째, 이러한 소설어의 순환 구조는 한글문장의 발전

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공식 문어 체계가 없었던 한글은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산문 문장의 표현 체계를 자생적으로 발전시켰다. 「소현성록」의 소설어는 한문 경전의 관념을 한글 형상 언어로 전환하고, 독서공동체의 해석을 통해 후대 창작의 자원으로 순환하며, 한글 산문의 문체적 관습을 형성했다.

위의 논의는 소설어가 단지 서사 언어의 한 양식이 아니라, 창작-텍스트-독서로 이어지는 문화적 순환 구조의 중심적 매개였음을 드러낸다. 향후 연구는 이 소설어가 한글문장의 형식적 변화를 어떻게 촉진했는지, 그리고 이후 장편 한글소설에서 어떤 언어적 계보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 문장 지표 분석을 통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

「소현성록」의 소설어는 전략적 윤리 언어에서 출발하여 자율적 형상 언어로 확장되었고, 독서공동체의 해석 행위 속에서 사회적 의미로 순환하였다. 이 언어의 순환 구조는 조선 후기 한글 산문이 도달한 윤리적 사유의 형식이자, 정동의 언어적 표현이 현실 인식으로 전환되는 지점이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로제 샤프티에·굴리엘모 카발로 편, 이종삼 역, 『읽는다는 것의 역사』,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정동정치』, 갈무리, 2018.
- 폴리르, 김한식·이경래 역,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지성사, 1999.

### 2. 단행본 및 논문

- 강유규·김바로, 「국문장편소설의 감정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연구 시론: <창선감의록>과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8, 한국고소설학회, 2024.
- 강혜진, 「소현성록에 나타난 유희도신 관계 고찰: 퇴치담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8, 한국고소설학회, 2019.
-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김미선, 「17세기 한글 산문의 발전과 소현성록」, 고려대박사학위논문, 2017.
- 김유미, 「소현성록 본전에 나타난 분노의 표출방식」, 『우리문학연구』 69, 우리문학회, 2021.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1994.
- 박은미, 「가문소설에 재현된 여성/혐오」, 『여성문학연구』 3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2010.
-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1,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서정민, 「가문 승계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지향」,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 \_\_\_\_\_, 「소현성록 이본간의 변별적 특징과 그 산출 시기」, 『인문학연구』 10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 \_\_\_\_\_,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의 시각 양상과 그 소통」,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 \_\_\_\_\_,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 그림활동의 특징과 문화적 배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12.
- 서정현, 「장편소설 속 반란을 소재로 한 군담의 양상과 그 의미」, 『어문론총』 99, 한국문학언어학회, 2024.
-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 12,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2.
- 유요문, 「『태평광기』에 나타난 악인의 양상과 그 수용의 의미」, 『우리어문연구』 71, 우리어문학회, 2021.
- 이민주, 「한글장편소설의 파생작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24.
-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 장시광,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 정대혁, 「자운가 연구: 소현성록과의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 정선희,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2007.
- \_\_\_\_\_, 「요구되는, 욕망하는 여성상: 소현성록의 석부인」, 『한국고전연구』 4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 정해경,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감정미학」, 고려대박사학위논문, 2012.
-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반복서술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 \_\_\_\_\_,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주형예, 「소대성전과 소현성록의 거리」, 『동방학지』 187, 국학연구원, 2019.
- \_\_\_\_\_, 「조선후기 소설 장(場)에서 구성된 지식: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담론의 실천·전유·분산의 한 사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학회, 2013.
- 최기숙, 「고소설의 감성 문법과 감정 기호: 소현성록의 감정 수사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 최어진, 「소현성록 석파의 혼종적 자아정체성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4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 최윤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외모묘사의 양상과 특징」, 『고전과 해석』 21,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6.
- 탁원정, 「소현성록 혼인담의 또 다른 국면, 분가(分家)」, 『고소설연구』 54, 한국고소설학회, 2022.
- 허순우,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을 통해 본 17세기 후반 놀이 문화의 일면」, 『한국고전연구』 3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 \_\_\_\_\_, 「현몽쌍룡기 연작의 소현성록 연작 수용 양상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홍정원, 「소현성록과 현몽쌍룡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 형상화의 계승과 변이 양상」, 『문학교육학』 4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

**Abstract****The Language of “Sohyeonseongrok”**The Stylistic Formation and Hermeneutic Circulation  
of Korean Vernacular Prose

Joo, Hyung-Ye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Sohyeonseongrok”, a seventeenth-century Korean vernacular novel, to clarify the stylistic formation and hermeneutic circulation of what it terms the “language of the novel” (sosŏlŏ). The novel’s language is not merely a vehicle for transmitting narrative content but a medium in which ethical assumptions and affective dynamics intersect to organize thought. Employing Paul Ricoeur’s threefold mimesis (Mimesis I – II – III), the study interprets how the text’s ethical and cultural presuppositions (Mimesis I) are configured into narrative structures (Mimesis II) and subsequently reconstituted through readers’ interpretive engagement (Mimesis III). Through this circular process, “Sohyeonseongrok” reveals the capacity of Korean vernacular prose to mediate moral reflection, affective expression, and the social practices of reading.

Chapter 1 examines the “strategic language of the novel,” focusing on the ways Confucian ethics and heroic narrative patterns are reorganized into vernacular scenes and speech acts that rearticulate patriarchal order. Chapter 2 explores the novel’s autonomous stylistic dimension, highlighting the emergence of “surplus affect” that exposes the rigidity and contradictions embedded in moral discourse. Chapter 3 traces how these linguistic and affective structures circulated within seventeenth-century reading communities, shaping the interpretive horizons of later Korean fiction.

Overall, the study argues that the “language of the novel” in “Sohyeonseongrok” exemplifies how late Joseon prose internalized dominant ethical norms while simultaneously generating new modes of emotional experience and interpretive practic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broader evolution of Korean narrative culture.

**Keywords** “Sohyeonseongrok”, Novelistic Language, Vernacular Korean Prose, Affect, Ethics, Reading Community, Paul Ricoeur, Late Joseon Vernacular Long Novels

---